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6호

2023.04.29(토) 16시 ~
2023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개최

제18회 청주 전국무용경연대회

석연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논란

이인영 국제뉴스 기자

‘운동할 권리’ 보장 못 받는 장애인들

운동 20년 했지만 ‘퇴짜’ ... 265만명을 위한 헬스장은 없다

고병찬 한겨레 기자

반대비체육센터 건립

인천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된다

김민 국민일보 기자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김가을 스포츠조선 기자

북한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북,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 개최... 분위기 쇄신 나서

황정호 KBS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3 체육시민단체 연합 세미나

대한민국 스포츠 시스템의 혁신 : 농구협회 미래전략 디비전리그를 중심으로

◇ 사회

정용철 | 서강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정재용 | KBS 국장

◇ 자유토론

○ 일시 : 2023.04.29(토) 오후 4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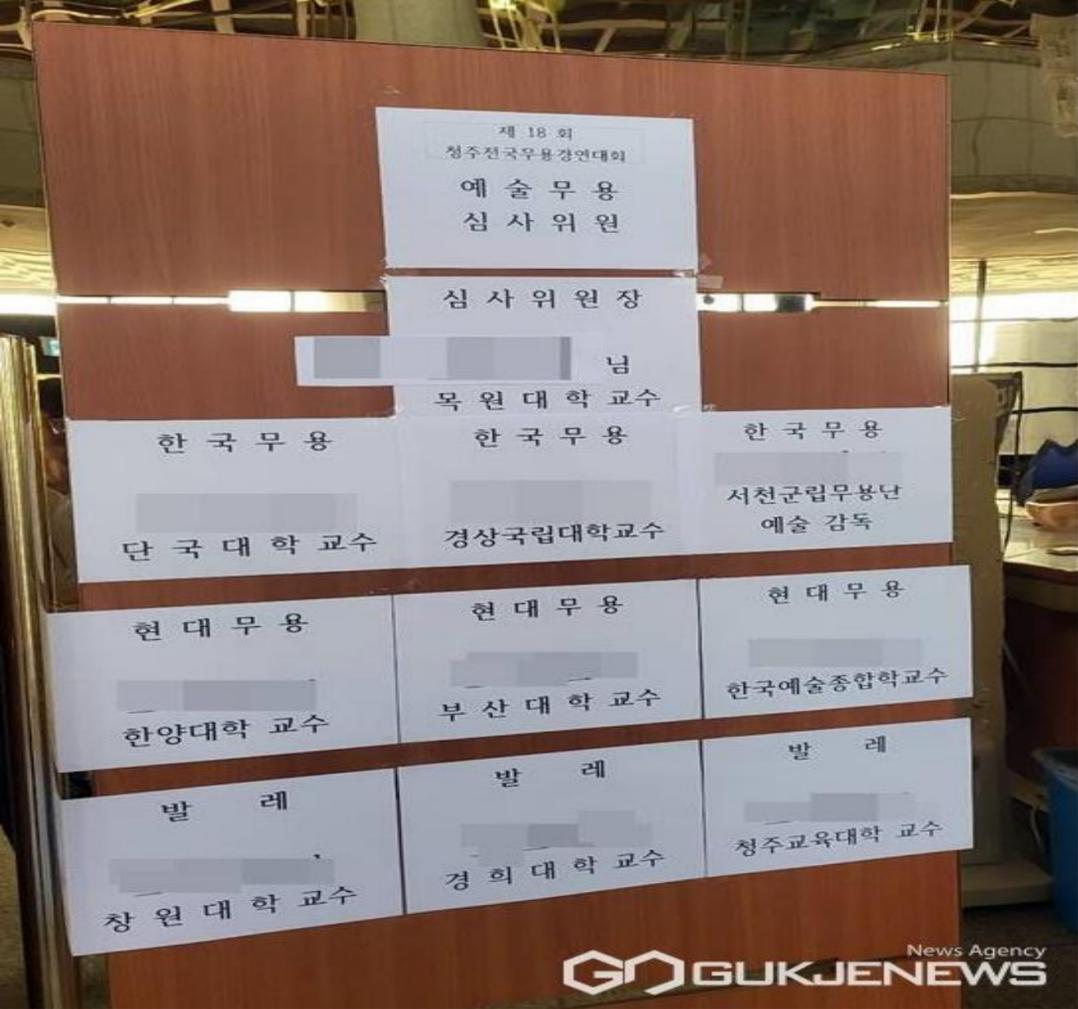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 주최 :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 주관 : 체육시민연대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석연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논란'

과거에도 청주시무용협회가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한 보조금 사업에서 임원 보조금 나눠먹기와 인맥관리 돈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전국무용경연대회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무용협회 청주시지부가 주관한 '제18회 청주 전국무용경연대회' 현대무용 부문에서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학생들이 대거 참가했음에도 주최 측은 '심사회피제'를 이유로 이 대학 L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까지 차지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심사위원장 포함 각 장르별 3명씩 전체 심사위원이 10명으로 현대무용부문에서 제자들이 대거 출전한 L교수가 심사회피를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이 L교수와 친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관계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상급 기관인 충북도무용협회와 대한무용협회에서 철저한 감사 등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민주 청주시무용협회장은 "작년에도 열 몇 팀이 났고, 올해도 그렇고 일반부가 거의 안 나오니까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라며 "(심사)회피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심사위원 위촉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박정미 충북도무용협회장은 "유감스럽다. 어제 벌어진 일로 난감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기피제가 있기는 있는데"라면서 "충북도 무용협회에서 잘 지도감독을 못해 죄송하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국제뉴스통신]은 '청주시무용협회 보조금사업 도덕적 해이...인맥관리 돈 잔치(2018년 12월15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무용협회는 매년 대회 때마다 심사비로 1인당 50만원씩 600만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이들 심사위원 중 다수는 시·도 협회임원이거나 노현식 회장의 '친위대(?)' 구축에 필요한 무용계 인맥들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김미자 청주시의원이 공개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시무용협회 '청주전국무용경연대회' 정산자료에 따르면 참가비 포함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2000만원 중 절반 이상이연구·기획운영·심사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주시무용협회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를 주최·주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임원 등 집행부가 대거 심사에 참여했다"며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자신과 이해상관이 있는 인물들로 심사비와 연구비 및 기획운영비 명목의 인건비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 20년 했지만 '퇴짜' 265만명을 위한 헬스장은 없다

“회원님은 눈이 불편하신 상황이니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해서 환불을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시청각장애인 박관찬(36)씨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날 낮 새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의 한 헬스장 쪽에서 “헬스장은 회원님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며 환불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20년 가까이 다른 헬스장을 다녔고 혼자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 헬스장의 위험한 환경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헬스장 쪽은 버텼다. ‘보호자 동반’ 또는 계약서에 ‘장애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헬스장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적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박씨는 다른 헬스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최근 ‘오하운’(오늘 하루 운동)이라며 매일 운동에 힘쓰는 이들이 많지만, 박씨처럼 아직도 265만3000여명(지난해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들은 운동하기 위한 장소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속 장애인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7일 <한겨레>가 박씨와 함께 강서구 일대 공공체육시설 2곳과 사설 헬스장 2곳을 다녀보니 박씨가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구립 공공체육시설인 체육센터는 “회원님이 ‘정 괜찮다’고 하면 저희에게도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보조인이 함께 오면 더 확실하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사설 헬스장의 한 직원은 박씨의 사정을 듣고선 “사고 위험 때문에 등록이 안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박씨가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고 하자, 그제야 보호자 동반이나 면책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씨는 “비장애인이 운동 기간이나 금액을 상담할 때 장애인들은 계약서에 면책 규정을 적어야 한다는 요구부터 듣는다”고 말했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박씨와 비슷한 일을 허다하게 겪는다. 25살 발달장애인 딸과 함께 사는 마명주(51)씨는 코로나19 이후 집 근처 공공체육시설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 사라진 뒤, 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거의 없다고 했다. 마씨는 “공공체육시설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아 힘들다”고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유진우(28)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2021년 9월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 10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1곳만 이용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 장애인들은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와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한 비장애인은 88.8%였지만, 장애인은 51.2%에 그쳤다. 장애인의 41.9%는 향후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지만,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11.4%), ‘운동프로그램이 부족해서’(7%), ‘체육시설이 부족해서’(4.3%) 꺼리고 있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운동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설 체육시설에선 출입 거부를 당하는 등 편견이 존재한다”고 했다.

장애인들의 운동 의욕을 떠받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국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73곳에 불과하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전국 5곳(서울 1곳)만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 센터를 89곳까지 늘린다는 게 확정됐다는 설명이지만,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 언제 완공될지 시점은 알 수 없다. 올해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사업 예산은 990억8500만원으로, 문체부 체육 부문 예산(1조6398억원)의 약 6%에 불과하다.

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체육시설들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짓거나 개보수해야 한다”며 “당장 비용이 들겠지만, 장애인들의 의료비와 고립감 해소 등의 비용을 따져보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된다

인천시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2차 공모에 선정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는 2026년까지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2층, 전체면적 3863㎡ 규모로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건립된다.

반다비체육센터 1층에는 장애 유형·실력별로 이용 가능한 수영장과 헬스실, 운동처방실이 들어선다. 2층에는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된다.

시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운영 중인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연계·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함께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군·구의 장애인 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장애인의 약 86%는 이들 군·구에 살고 있다.

지난달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문을 연 장애인전용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의 경우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과 전국 최대 규모 시설을 토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아울러 연말까지 장수배수지 파크골프장과 장애인체육관의 시각장애인축구장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부평 열우물경기장, 중구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수학교·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이밖에도 장애인레포츠가족캠프, 인천시장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등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행사와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평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지역과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이해관계자들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필요)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총 134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6개, 준정부·기타형 98개)을 대상으로 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총 51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공단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문화 확산, 스포츠 중소기업 도약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의 4대 전략방향과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기업 대상 역대 최대 용자 지원(2,289억 원)과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300여 개의 스포츠 중소기업을 육성했다. 이로 인해 '2022년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과제 신설, 협력기업의 복리증진 지원 확대 및 재난 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 복구 성금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 평가됐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적인 상생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 개최... 분위기 쇄신 나서

북한이 다양한 생활체육(대중체육) 대회를 개최하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4일)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2023이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성지관, 청춘거리 룡구(농구)경기관, 동평양경기장 등에서 '태권도', '바줄당기기(줄다리기)', '11m 승부차기' 등 종목 경기들이 진행됩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간부) 800여 명이 참여한 탁구 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고, 18일에는 병원 직원들을 비롯한 보건부문 간부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중앙기관 일군 체육경기대회'와 '전국 농업근로자 배구경기'가 잇달아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동반해 지난 2월과 이달 관람한 '내각-국방성 체육경기 시합'도 두 기관 직원이 축구와 줄다리기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 생활체육 형식이었습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월 "체육은 삶의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고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준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면 청춘의 활력에 넘쳐 건강한 몸으로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생활체육을 독려하는 것은 그간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대내 결속을 통해 각종 사업 성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주간 기념 '다시 즐겨 봄' 개최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42313324422877>

국민체육진흥공단, 창립 34주년 기념 새 비전 선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063900007?input=1195m>

체육기자연맹, '대한민국 핸드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5025685>

부산시 노인전용체육시설 '복합힐링파크' 건립 본격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424.99099007155>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오는 27일 구미서 개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4000479>

성남서 27~30일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5_0002279044&cID=14001&pID=14000

대한체육회, 2023년 제2차 국제대회 오피저버 프로그램 개최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42414161732370>

부산 을숙도에 노인 전용 체육시설 들어선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07352?OutUrl=naver>

'배구 스타에게 듣는다'...진주시체육회 28일 초청강연회

<https://www.news1.kr/articles/502538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